

[종합]

정부, 한전 자회사 등 민영화 철화

나주 혁신도시 차질없이 건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및 대부분의 출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불만이 상당한 만큼 관련업과 관련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불만이 상당한 만큼 관련업과 관련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전 자회사 등 민영화 철화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직원들이 17일 나주시 한 농가에서 결핵검사를 위해 소의 혈액을 채취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美·英 이어 전남도 '소 결핵' 비상

미국과 영국 등이 '소 결핵'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남지역에서 결핵감염으로 인해 살처분된 소들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이력관리에도 '무선 인식'

정부가 무선인식(RFID)/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자산과 도시시설물, 우편 등 3대 공공분야에 RFID를 우선 도입하고 쇠고기 이력관리에 R-FID를 본격 적용한다.

장성군 여성 기관장 전성시대

장성군에 여성 기관장 전성시대가 열렸다.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경찰 인사에서 여성인 한재숙 총경(55)이 장성 경찰서장으로 임명돼 지난해 12월 19일 재선거로 당선된 이청 여성 기관장으로 부임했다.



<이청 군수> <한재숙 서장>

'카파라치' 부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가 제한적으로 부활했다.

광주, 전남 6월 수출 모두 감소

승용차·철강제품 부진 9.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감소 이유로 광주세관은 광주를 승용차와 고무타이어 등이, 전남은 철강제품 등이 수출감소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g-do, featuring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and a building.

Advertisement for '광주일보' (Gwangju Ilbo) featuring a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s.

Advertisement for '전남대학교 신 에너지 RIS 사업단' (Chonnam National University New Energy RIS Project Team) for 2008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Mountain Hiking Safety) listing various hiking routes and dates from July 19th to August 10th.